

도서관인의
窓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이야기 할머니를 꿈꾸며...

글: 김지현*



※ 이 글은 우리 협회가 지난 3월 29일(금)부터 6월 25일(금)일까지 15주간 진행한 제1기 이야기(스토리텔링) 전문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이 과제로 제출했던 발표문 중 한편을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1. 스토리텔링시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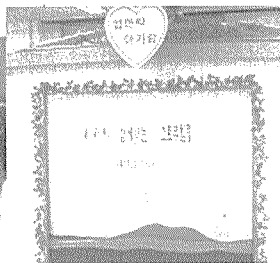
5년 동안 긴 외유 끝에 2003년 1월1일자로 주안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보직을 아동·주부실로 명받았다. 오랜만에 도서관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 다소 생소하기까지 할 정도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차츰 도서관환경에 적응을 할 즈음 2003년 8월 자체연수 시간에 '주안도서관 아동·주부실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제하게 되었고, 발제 내용 중에서 '스토리텔링'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2003년 9월에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1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서와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시간을 갖기로 했고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전 직원이 2인1조가 되어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였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스토리텔링 시간이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10월 첫 주 화요일 4시가 되었는데 스토리텔링 시간이라면 서 아이들이 아동주부실로 들어 오는게 아닌가....부라부라 커튼

치고 촛불 켜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나서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내심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어찌나 기뻐는지 모른다. 일전에 방문했던 일본공공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 시간을 갖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



* 주안도서관 사서, 우리 협회 주최 '제1기 이야기(스토리텔링) 전문교육과정' 수료, pulib315@hitel.net



어주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음에 가슴이 벅차기 까지 했다.

2. 열악한 환경에 도전하기

그렇게 계속 아동주부실에서 담당자가 돌아가며 매주 화요일 4시에 어김없이 '사서와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주 어떤 책을 읽어주어야 하나 고민도 헤가며 즐겁게 하던 중 환경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다. 아동·주부실바닥에 깔린 카펫이 늘 맘에 걸렸는데 이를 제거하고 새롭게 유아실을 정비했다면 좋겠다고 느끼던 중 관장께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어 예산을 새롭게 받아내어 아동·주부실내 유아실을 새롭게 단장하게 되었다.

때마침 순천기적의도서관이 개관되어 그곳을 현지 방문하여 스토리텔링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얻었다. 공사기간이 1개월이었지만 공사기간 중임에도 아이들은 스토리텔링 시간에 어김없이 참석하여 우리들을 아주 놀라게 해주었다.

그동안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 흰 천으로 창문을 가리고, 아이 엄마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등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방문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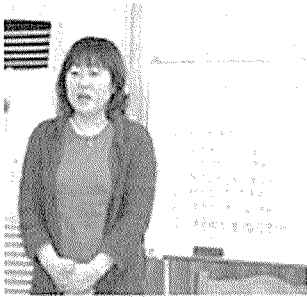
드디어 2003년 12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새롭게 꾸며진 유아실에서 특집으로 마련한 "산타할머니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즐겁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었다. 아이 엄마로부터 미리 전해 받은 산타선물도 준비했고, 그간 열심히 함께한 어린이들에게 나눠줄 선물도 준비하고...

3. 체계적인 스토리텔링 시간 운영을 위하여

스토리텔링시간을 운영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졌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인가! 이론적 바탕이 채 정립되기 전에 시작한 것이어서 스토리텔링에 관한 기사를 모아 읽어보기도 했지만 과연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즈음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야기전문(스토리텔링)교육과정'를 개설했다는 것이었다.

가슴에 단비내린 듯 마냥 신바람이 나서 관장실로 들어갔다. 다짜고짜 관장께서 시간만 허락 해주신다면 열심히 배워서 엔돌핀을 최대한 발휘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결국 강좌신청 허락을 받게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을 들었다.

강의 첫째시간에 그간 궁금하던 궁금증이 모두 풀렸다.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진



행해 봐야지 하는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다.

강의를 듣고 난 후 난 스토리텔링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최선을 다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시도해보았다. 처음부터 책을 읽어 주어서 그런지 반응이 몹시 썰렁했다. 다소 감빠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고, 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배우는 선생님들에게서 용기도 얻으며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4.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픈 욕심을 가슴에 품고

그러던 중 내게 참 소중한 시간이 함께하는 그런 일이 찾아왔다. 주안도서관에서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스토리텔링이 함께 하게 되었다. 관내 보육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첫날 설레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보육원을 방문했다. 이야기감으로는 『꼬마호랑이와 요술약』(조문현 글 최달수 그림, 동아출판사)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조용하게 있더니만, 책을 읽어준다니까 와~ 하면서 아이들이 떠들기 시작했다. 아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대로 '듣기교육'에 관한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꺼라고 자위는 했지만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히려 아이들은 함께 놀아주길 더 원했다. 할 수 없이 첫날 보육원을 방문했던 우리 직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함께

놀이주는 일을 하고 돌아와야만 했다.

두 번째 보육원을 방문하는 날이다.

지난번의 경험이 또 나를 긴장하게 했다. 이번엔 지난 수업시간에 그림책 읽어주는 법을 들었던 차라 그리해야지 하며 책을 선정했다.

『난 토마토 절대 안먹어』(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책을 먹는 도깨비 깨보』(김승태, 예명커뮤니케이션), 『구렁덩덩 신선비』(웅진닷컴 편집부)를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시선을 잡아내며 이야기 할까를 궁리하며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동무동무 씨동무~” 노래도 가르치며 막 이야기를 시작하려하는데 아이가 손을 들고 분위기를 흐리려 하는 거다. 그때 이야기를 잘 듣는 어린이에게 선생님이 나중에 끝나면 선물을 주겠다고 미리 말을 했다. 그리고는 준비해간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모두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운대로 아이들 시선잡기에 도전을 했다. 나의 노력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난 점점 더 목소리도 커졌고 신바람이 나서 나도 모르게 오버를 하기 시작했다. 일단 이야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바로 책읽기를 시도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특히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라는 책을 읽어주니까 까르르 웃기도 하고 박수도 쳐가며 열심히 그림책에 열중해 주었다. 함께 간 동료들도 오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렇게 이쉽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5월 13일 3차 방문하는 날이다. 보육원으로서의 발길이 여느때보다 한결 가벼웠다. 이번엔 이야



기만 내가 하고 책 읽어주는 것은 동료가 해주기로 했다.

보육원에 막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마중을 나와 있는 것이었다. 순간 어찌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선생님!!! 하며 반기는 아이들...” “선생님 맨날맨날 오면 안되나요?” 아마도 아이들은 사람이 그리운 게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에게 “동무동무 씨동무~” 이야기 시작 전 에피타이저 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곧잘 따라 부르는 것이 오늘따라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이야기를 들려주려하자 오늘도 사탕 선물 줄 거예요!! 하며 분위기를 또 흐리려한다. 이야기시간을 집중시키기 위해 가만히 기다렸다. 아이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용~하다. 물론 선물도 줄 것이고 오늘은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도 해보자고 했다.

아이들의 올망퐁망한 눈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 수용된 아이들은 70%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 도전적이고 파괴적이라며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 같아 동물들을 키우기로 하고 토끼랑 강아지 등 작은 집짐승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를 넓게 만들어 아이

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하였는데 아이들은 귀엽기만 한 동물들을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라고 생각하며 마구 학대하며 다리도 잘라내고 귀도 자르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해서 지금은 동물들만 우리에게 가둬놓고 키운다고 수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다.

지난 번에 수녀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함께 더 붙어 가는 내용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선정해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들게 했다.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이야기에 힘을 실어 강약 조절을 해가며 들려주었다.

『황금똥을 누는 고양이』(신현배 글, 이남구 그림, 영림카디널), 『너랑안놀거야 - 야기뽀야기, 팍팍이야기』(이재벨 아베디, 한진희역), 『동동이랑 가위바위보』(이상호 글그림), 『방귀만세』(후쿠다 이와오글 김난주 역)

이야기와 책읽기를 마친 후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스케치 북에 그림을 그리며 열심히 이야기를 들려준다. “선생님 이게요 동동이예요... 아까 선생님이 읽어준 책에 나오는 그 동동이예요!!” 어찌나 귀엽던지... 하지만 역시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그리웠던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선생님 좋은 냄새가 나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훗날 이야기아줌마를 기억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이야기기법을 모두 동원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다지며 발길을 돌렸다. 